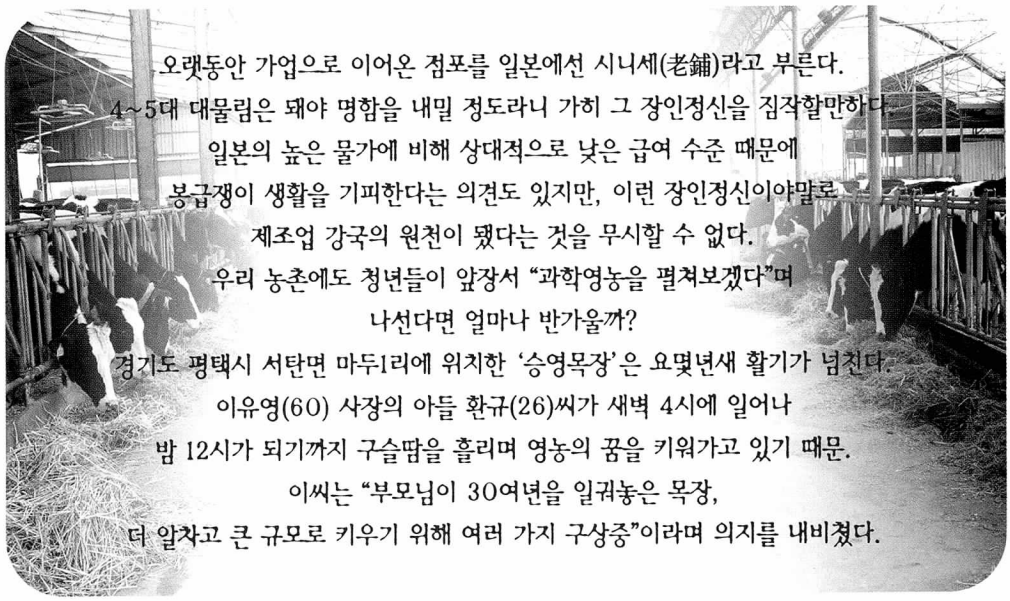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낙농인의 목소리

"재밌게 일하고 내실있게 키울게요"

서원TMR(주)가 추천한 승/영/목/장

〉〉〉〔 취재 _ 오세진 〕



오랫동안 가업으로 이어온 점포를 일본에선 시니세(老鋪)라고 부른다.
4~5대 대물림은 돼야 명함을 내밀 정도라니 가히 그 장인정신을 짐작할만하다.
일본의 높은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봉급쟁이 생활을 기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장인정신이야말로
제조업 강국의 원천이 됐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농촌에도 청년들이 앞장서 "과학영농을 펼쳐보겠다"며
나선다면 얼마나 반가울까?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마두1리에 위치한 '승영목장'은 요몇년새 활기가 넘친다.
이유영(60) 사장의 아들 환규(26)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되기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영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
이씨는 "부모님이 30여년을 일궈놓은 목장,
더 알차고 큰 규모로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구상중"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목장, 제품, 컨설팅의 하모니

논 위 이곳저곳 사일리지가 쌓여있는 풍경을 따라 도착한 곳은 승영목장.

5,000여평의 널따란 대지 위에 우사 5동이 자리잡고 있다.

우사 한 쪽에서는 환규씨가 서원TMR(주) 김연환 과장과 함께 소 상태를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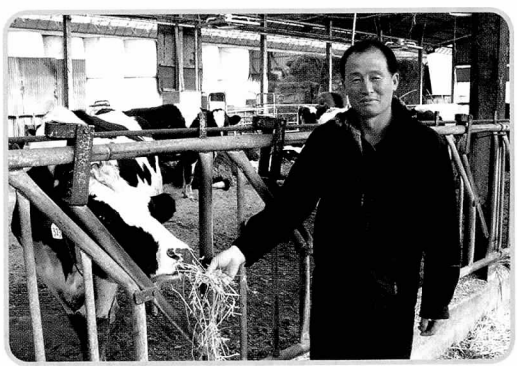
"뭘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건유우들 좀 살펴보던 중이었어요. 우리 목장의 장점이라면 철저한 개체 관리를 꼽을 수 있어요. 특히 건유우 관리를 잘해야 분만 후에도 젖소가 건강하고 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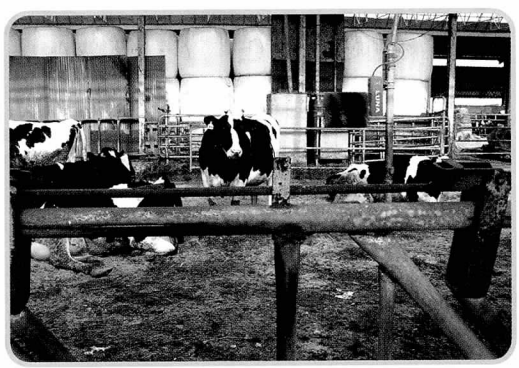
앳되보이는 얼굴이지만 먹이 주는 솜씨, 소를 살피는 모습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목장 일을 도왔나 봐요"

"크게 도운 것은 없어요.(웃음) 그저 부모님이 소들에 애착을 갖고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것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



▲ 승영목장 이유영 사장.



▲ 톱밥 위에 앉아 반추하고 있는 소.

▲ 시원하게 등 긁고 있는 소.

▲ 서원 TMR(주) 권순영 부장, 승영목장 이환규씨, 서원 TMR(주) 김연환 과장(왼쪽부터)

특히 부모님이 개체 관리를 남들에게 맡기는 것이 안심이 안 돼 제대로 나들이 한번 못할 정도로 애착을 가진 것, 본인들만의 사양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컨설팅과 새로운 시도를 마다치 않았던 점이 지금의 목장이 있게 된 원동력이라고 자랑스레 말한다.

이날 목장을 찾은 서원TMR(주)의 권순영 부장도 "낙농업이 성공하려면 목장, 제품(사료 등), 컨설팅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하는데 승영목장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니 좋은 성적이 날 수 밖에 없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렇듯 이유영 사장의 낙농에 대한 열정은 동생이 기르던 송아지 2두로 시작한 목장을 착유우 50두, 건유우 13두, 육성우 40두, 송아지 35두, 비육우 20두 등 150여두로 발전시켰다.

이 뿐 아니라 평균 납유량 일 1,700kg, 유량 34~35kg, 유지방 4.1%, 체세포 11만, 세균수 1A급 등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우유는 전량 서울우유로 납품하고 있다.

우사 바닥에는 톱밥을 깔아 뽀송뽀송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벌크차로 신선한 무포장 TMR 사료를 급여하고, 개체별로 특성에 따라 배합사료를 급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목장 옆 1만2천여평의 땅에 논 농사도 직접 지어 조사료를 조달, 유사비를 1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장은 성공적인 목장 경영 노하우에 대해 "사료나 시설 투자 등에 있어 표면적인 단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성적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귀띔해 줬다.

또한 "서원 TMR(주)의 사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품질이 좋을 뿐 아니라, '관리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감탄할 정도로 수시로 방문해 철저하게 컨설팅을 해 줘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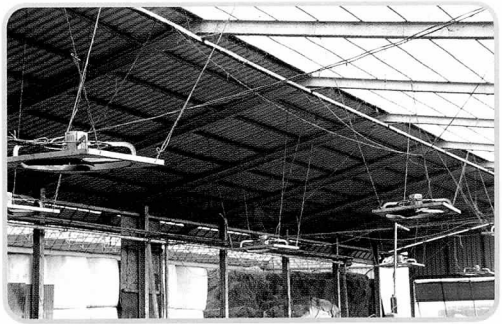
어디선가 들리는 털털털 소리.

소리를 따라가보니 목장 곳곳에 설치된 자동으로 등 긁어 주는 기계에 소들이 등을 대고 시원한 듯 음매를 외치고 있다.

"세심한 배려인데요?"

"사람도 등이 간지럽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긁기도 힘들고 결국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거든요."

▲ 승영목장은 1만2천여평 논에 직접 농사를 지어 조사료를 조달한다.



▲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매달아 놓은 팬.

미래를 준비하는 목장

승영목장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시행착오도 잇따랐다.

3년 전부터는 유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유방염 걸린 소들이 나오며 도태율이 높아졌다.

원인을 찾지 못해 속앓이를 하던 중 착유기를 파이프라인에서 헤링본으로 교체하면서 맥동기 좌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환규씨는 "20여마리의 소를 도태시키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 일로 인해 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게 됐고,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돌봐야 하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사장과 부인 이정애씨, 아들 환규씨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댔고, 환규씨는 부모님 뜻에 따라 천안 연암대학 낙농학과에 입학한 뒤 영농후계자로 선정돼 차근차근 목장 수업을 받았다.

"한창 친구들하고 어울릴 나인데 목장에서 떠나질 못하니 아쉬운 점도 있겠어요."

"이 길에 들어선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자연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요. 부모님께서 이만큼 기반 잡아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질문이 무색할 만큼 시원한 답변이다.

환규씨는 '최고의 목장'을 일구기 위해 마음이 분주하다.

향후 비육우사를 지어 비육우를 150두 정도로 확장하고, 착유우를 70두로 확장해 2,000kg 가량을 납유할 계획이라고 한다.

비육우를 확장하는 이유에 대해 "축산경기가 생각만큼 좋지 않아요. 개방화 물결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잉여 시간을 활용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겠죠"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이와함께 "축산이 전업화 · 대규모화 되가는 추세인데 정부 보조사업 등이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축소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영농 2세들이 자리잡을 수 있게끔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밤이면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그 힘든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환규씨.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며 '최고의 낙농인'을 꿈꾸기에 그의 도전에서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하는 안쓰러움 보다 반가움이 먼저 느껴지나 보다.